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혁남

대선후보 TV토론 자격 기준 논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에게 어지간히 혼난 모양이다. 지난 4일 1차 TV토론회가 끝나자 새누리당은 국민적 지지도에서 1%에 불과한 후보가 지지도 40% 이상의 메이저 후보들이 겨루는 법정 토론회에 출연하여 판을 어지럽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선 대선후보 TV토론 참가자격을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 등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하였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등 세 명의 메이저 후보 외에 3명의 군소 후보가 법정토론회에 진출하여 모두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를 벌였다. 그럼에도 당시 한나라당은 아무 말이 없다가 3명이 겨룬 이번 토론회를 두고선 새누리당은 불만이 매우 많다.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은 마이너 후보들의 법정 토론회 진출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후보자간 TV합동토론은 그동안 후보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해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선거법은 토론 참가자, 진행과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과 기계적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토론의 역동성과 흥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사실, TV토론의 모든 문제는 토론회 참여 후보의 자격 기준에서 비롯된다. 자격 기준을 낮추면 군소 후보와 정치 신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TV토론 자체가 난삽해지고, 경쟁력을 갖춘 메이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자격 기준을 높이면 다수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적·물적 자원이 빈약하고, 각종 법과 제도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군소 후보들이 희생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평등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TV토론에 참여하는 후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토론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방송 토론회는 후보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결국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경쟁력 기준을 어느 선으로 정하느냐이다. 현행법은 ①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②직전의 각종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③최근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새누리당은 미국과 같이 지지율 15%를 주장하는데 이 기준은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따라서 필자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에서 적용했던 ①원내 교섭단체 정당의 후보자 ②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 이상의 후보자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TV토론 진출 후보는 잘해야 세 명에 불과하게 되어 지금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토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을 5%로 낮출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질문의 무게와 복잡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1분 또는 1분30초 내에 답변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형평성이 토론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 중에서 한 문제에 대한 답변 시간을 최대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후보 자신이 시간을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량시간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간의 심층적이고 활발한 토론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지금의 TV토론은 하루 빨리 보다 역동적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져야 할 것이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학부모·교육감 입장차 광주교육 걱정된다

현행 입시제도를 놓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학부모들간 입장차가 극명해 '실력 광주' 위상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능 성적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반면 교육감은 수능 몰입보다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11일 광주 상무고등학교에서 열린 '교육감 현장 대화'에서 200여 학부모회장들은 "현 상황에서 수능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청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장 교육감은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고교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맞섰다. 입시제도의 교육 방향을 놓고 학부모와 장 교육감간에 큰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다.

학부모들은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대학 입시를 앞둔 고2 학생들의 학력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국·영·수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지난해 모두 1위에서 올해 2위~5위로 추락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 교육감의 인식은 학부모의 진단과 크게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는 수능 성적이 단정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광주가 지나치게 수능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일선 학교나 사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대책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실력 광주'의 위상 추락을 달리 해석하는 교육감의 시각에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다.

실력이 교육의 전부라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장 교육감은 입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불황에, 선거법에 더 각박해진 세밑 온정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대선이 연말에 치러지면서 지자체와 각종 단체들의 이웃돕기 행사가 움츠러들고 있다.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우이웃들은 더욱 힘겨운 겨울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동(洞) 부녀회별로 진행되는 김장김치 담그기나 온정 나누기 행사의 상당수가 대선 공식선거 시작 이전에 치러졌거나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고 한다.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도 연말 이웃돕기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선거법 상 국가와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와 주민자치회는 선거기간 행사나 모임이 제한된다는 게 그 이유다.

세밑 온정도 예년만 못하다. 장기 불황에도 연말이면 개인과 단체가 전달한 성금 및 성품이 구청이나 복지관 등에 몰렸지만 올해는 선거가 겹치면서 더욱 뜸해졌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선거법에 걸릴까 눈치를 볼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선거 때문에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나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다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오는 19일 대선이 끝나면 10여 일의 연말과 한 달 이상의 연시가 남아 있다. 그 기간 온정 나누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해가 갈 무렵이면 불우한 이웃은 온정이 그립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아쉽다. 각급 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나 개개인의 작은 기부와 정성 또한 소중하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만큼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춥고 그늘진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더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온정의 불씨를 살려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료 칼럼

보험살인과 법의학

김윤신

보험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된다.

즉 각각의 개인들이 거대한 집단을 형성해 그 가운데 1명이 사망하거나 신체적 부상 혹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수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부딪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경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고, 잘 발달된 보험제도는 저축과 투자의 주요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불의의 사고로 삶이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천사 같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보험제도가 범죄자의 눈에는 일확천금의 완벽한(?) 범죄수단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범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가입자를 살해하는 범죄, 즉 보험살인이다.

보험계약법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 끝에 그야말로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계획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보험살인은 주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한다.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였다는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범죄경제학적 관점에서 범죄자는 시간과 자원의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가정된다. 한건의 범행을 통해 기대되는 수익은 크고, 반대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면 당연히 범죄자는 그러한 범행을 계획하게 될 것이다.

현행 보험상품 중에 일부 특약상품이 그러한 범죄 유인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부검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휴일 사망시 계약금액의 10배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해 주는 특약상품이 그것이다. 휴일이면 평일보다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사고를 조사할 인력은 평소보다 적으며,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실 또한 휴무 상태에 있게 된다. 범죄의 성공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보험살인은 대부분 자신의 가족을 범행대상으로 한다. 사망 보험의 수취인이 가족이 아니라면 더 큰 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치밀한 계획 아래 자행된 고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사고 원인에 있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고의 사고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장례일정을 미루게 하기가 곤란해진다. 부검을 위한 영장청구를 결심하기도 어렵고, 아내와 사별한 남편에게 당신이 처를 살해한 것 같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내기는 더욱 어렵다.

보험살인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가장 극단적인 유형으로서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윤리와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단호한 사회적 대처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조선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기고

채러티(Charity)와 기부문화

이상배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뉴스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봉사활동과 나눔은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실천하는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러한 노력들이 대개 특정 시기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누구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다. 또 다른 한 가지 고민은 우리 생활 속에서 서로 돕고 베푸는 문화를 정착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한두 번은 고심했을 숙제일 것이다. 대안으로 영국에서 거주할 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채러티(Charity) 가게를 소개해 볼까 한다.

영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동네에 적어도 한두 개 자리 잡은 채러티 가게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채러티 가게는 비영리자선단체가 시민들의 기부나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가 이런 형태로 옥스퍼드에 본부를 둔 '옥스팜'을 모델로 한 것이다.

채러티 가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다. 널리 알려진 것들로는 난민, 기아,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를 돕거나 장애아동이나 결식아동을 구호하고, 심장병이나 암을 퇴치를 지원하는 곳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목적을 지닌 채러티 등이 있다. 또 여기서 일하는 거의 대다수는 자원봉사자들이라는 것이다. 영국 전역에는 채러티 가게로 등록된 곳이 9000개가 넘고 1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채러티에 물건을 기부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시민들 누구든 입던 옷이나 쓰던 물품 등을 검정 비닐에 담아 희망하는 채러티 가게 앞에 두거나 전달하면 된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분류해 수선 또는 다림질 후 판매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내게 된다. 다만, 기부 물품 들은 대개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들로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듯한 마음으로 전한다고 한다. 채러티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필요한 물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지만 또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 역시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채러티와 기부 및 자원봉사 문화는 선행을 미덕이나 의미로 여기던 중세 카톨릭의 영향 이래 19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으로 여권 신장에도 기여하게 되며,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현재와 같이 정착하게 됐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복지제도가 생겨나기 전부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학교에서는 어릴 적부터 이러한 문화를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달리기나 책 읽기 대회 등을 통해 기부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동장을 몇 바퀴 돌거나 책을 몇 권 읽을 때마다 학부모들이 미리 약속한 기부금을 그 성과에 따라 내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좋은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체력 향상과 책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자선단체들의 설립 목적과 운영 그리고 역할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한편 이후에 자원봉사 활동 등에 스스로 참여하고 이용하게 되는 등 채러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채러티 가게는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이고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이처럼 기부문화가 보편화하고 생활 속에 정착돼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있다. 런던올림픽에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었다. 그러한 문화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길러져 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상시적이고 쉬운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할 것 같다.

광주시는 전국 최고인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채러티의 장점을 잘 빌려온다면 이는 광주의 새로운 기회이자 지역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말 한층 성숙한 기부문화를 고대하며, 지역민들이 광주만의 채러티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無等鼓

등골 브레이커

청소년들 사이에서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던 노스페이스 열풍이 올해는 사그라드는 듯 하다. 노스페이스는 지난해 '동계교복'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등골 브레이커'는 자녀들에게 사주려면 부모들의 등골이 휠 정도로 비싼 방한 재킷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한 때의 유행이라고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었을 뿐이지, 청소년들의 '패딩'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올해는 또 다른 고가의 브랜드 패딩들이 청소년들의 소유욕을 자극해 부모들의 지갑을 털어내고 있다. 지난해 6가지 종류의 노스페이스 패딩은 '족보'까지 등장하며 하위 제품을 입으면 '찌질이', 상위 제품을 입으면 존중(?)을 받을 정도로 그 열기가 가히 광풍 수준이었다. 이런 광풍이 올해는 사라지나 했는데, 이제 그 열기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며 이제 패딩은 대표적인 '등골 브레이커'가 됐다.

최근 중·고교생 사이에 입소문이 난 브랜드는 다운 점퍼인 코오롱스포츠의 '헤스티아'. 모 연예인이 광고하는 이 패딩 가격은 무려 47만 원이라고 한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난해가 나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저가형'이라도 노스페이스만 사주면 됐는데, 올해는 브랜드가 다수로 확대되면서 저가 모델은 찾을 수 없게 됐다.

인터넷에서는 K2, 코오롱, 네파, 블랙야크, 아이더, 밀레 등 브랜드도 모델마다 평민부터 귀족까지 나눠놓은 '계급도'가 나돌고 있다. 브랜드 회사들의 장삿속 때문에 가격은 지난해보다 20~30% 이상 올랐다.

더 문제는 지난해 사줬던 노스페이스는 이제 아이들이 잘 입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모들 사이에는 "집에 남은 노스페이스 패딩을 올해는 아빠가 입고 다닌다"는 우스갯 소리도 등장했다.

올 겨울은 유난히 폭설과 한파가 많다고 한다. 자식들에게 따뜻한 패딩을 사주는 부모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들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세계 최고 '고위험 음주군' 한국남성 연말 음주 자제를

OECD국가 중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이 세계 최고 '고위험 음주군'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서적 특성상 여러 모임이 참 많다. 물론 빠지기도 어렵고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모임들이다. 혈연 학연 지연이 여전히 나의 직장생활과 사회적 지위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 유지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임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대표적 모임은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사우회, 회사 기수, 산악회, 각종 종교단체 모임 등 참 많다.

이런 곳에 가면 역시 술은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폭탄주를 먹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먹게 되고, 남성은 한 번에 소주 7잔, 여성은 5잔 이상 마시면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고위험 음주군'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한번 마시게 되면 이런 양을 훌쩍 넘기게 된다.

한국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4명 중 1명꼴인데 이는 미국의 1.8배, 프랑스에 비해선 3배가량 높아 OECD국가 중 최고라 한다.

알코올 분해 능력으로 치면 여성이 남성의 절반 정도이고 동양인이 더 낮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그런 거 다 따져가며 술을 마시냐고 오히려 그런 경고를 무시하기 일쑤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음주량은 남성은 소주 반 병, 여성은 4분의 1병이라고 한다. 음주로 얼굴이 붉어진다면 알코올분해 효소가 적은 것인 만큼 조금 마셔야하고, 술 종류를 바꾼다면 처음에 마신 술 보다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이 도움이 된다는 것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술에 탄산음료를 섞거나 담배를 피우면 알코올 흡수율이 높아지고, 해장을 할 때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콩나물이나 북엇국 같은 맑은 국물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우리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노력을 하자.

▲유병숙·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